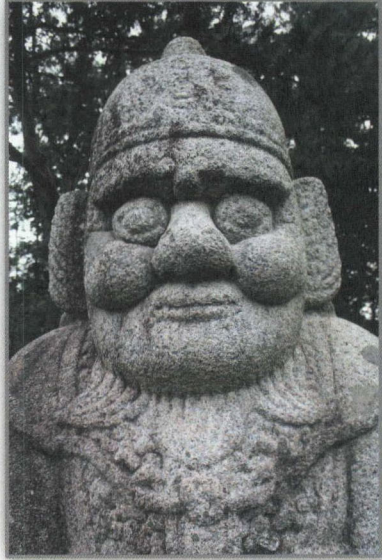


개성시



제릉(齊陵)

1. 연혁

능 주 : 태조 원비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1337~1391]

위 지 : 경기도 개성시 판문군 상도리

지정번호 :

봉릉연대 : 1391년(공양왕 3)

전릉연대 :

왕릉형태 : 단릉

2. 왕릉 소개

제1대 태조의 정비(正妃)인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 韓氏; 1337~1391)의 능인 제릉은 신의왕후가 조선 개국(開國) 이전에 승하(昇遐)했기에 개성 근처에 단릉(單陵)으로 봉릉(封陵)하고 조선 개국 이후에 추존(追尊)하여 제릉(齊陵)으로 명명했다.

태조의 건원릉과 신덕고황후(神德高皇后)의 능이 서울 근교인 구리시와

서울의 정릉동에 있는 것과 달리 제릉이 개성 근교에 조성된 것은 신의고황후가 조선이 개국되기 전에 승하했기 때문이다.

3. 능주 소개

신의고황후는 본관이 안변(安邊)인 밀직부사(密直副使) 증영문하부사(贈領門下府事)인 안천부원군(安川府院君) 한경(韓卿)의 딸로 1337년(고려 충숙왕 복위 6)에 안변부에서 태어났다.

안변은 본래 고구려의 비열홀군(比列忽郡)으로 신라 진흥왕 때 비열주(比列州)로 고쳤고, 경덕왕 때 삭정군(朔庭郡)으로 했으며, 고려에 이르러 안변도호부가 되었는데, 남쪽에 위치한 풍류산(風流山)에 신의고황후의 조상 묘가 있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풍류산 위에 못이 있는데 세상에 전해 오기를 공중에서 때때로 음악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지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의고황후가 태어날 때 풍류산에서 음악 소리가 3년 동안이나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신의고황후는 1351년 영흥에 있던 태조 이성계에게 15세의 나이에 시집을 왔다. 가례를 올린 뒤 1356년(공민왕 5)에 등용되어 관직에 나아간 태조가 침입해온 원나라 장수 나하추를 함흥평야에서 격파하고, 삼선(三善)·삼개(三介)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봉익대부밀직부사(奉翊大夫密直副使)에 오르고 단성양절익대공신(端誠亮節翊戴功臣)에 책록되자 황후는 원신택주(元信宅主)에 봉해졌다.

황후는 함흥(咸興)에 살면서 태조와의 사이에 6남 2녀를 두었다. 방우(芳

雨)·방과(芳果; 정종)·방의(芳毅)·방간(芳幹)·방원(芳遠; 태종)·방연(芳衍) 등 6남과 경신(慶愼)·경선(慶善) 등 두 공주를 낳은 것이다. 태조가 30년 가량 전장을 누비어 한시도 편안한 때가 없었는데도 황후는 집안을 잘 다스려 태조로 하여금 집안일을 잊고 성공하도록 도왔다.

고려 우왕 때는 포천(抱川)에 거주했는데, 1388년(우왕 14) 위화도 회군 당시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동북면으로 피난하기도 했다.

황후가 승하한 것은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기 1년 전인 1391년(공양왕 3) 9월 23일의 일이다. 병을 앓다가 보령 52세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처음에는 해풍군(海豊郡) 치속촌(治粟村)에 장사를 지냈으나, 태조는 조선을 개국한 뒤 시호를 절비(節妃)라 추존하고 능호를 제릉이라 하여 개풍군 상도면 풍천리(현재의 북한 행정구역명은 개성시 판문군 상도리)에 봉릉(奉陵)했다.

이때 능직관(陵直官)으로 권무관(權務官) 2인과 수릉군(守陵軍) 50호를 두었다. 그리고 제릉의 동쪽 마을에 재궁(齋宮)을 지어 초경사(肖慶寺)라 했다. 능에 제사를 올리는 사찰을 둔 것이다.

1398년 태조의 선위로 왕위에 오른 둘째 아들 정종은 11월에 모후인 절비한씨의 묘호를 신의왕후(神懿王后)라 추존했으며, 이듬해 2월에는 즉위 후 처음으로 제릉 참배를 위해 개성으로 행행했다. 참찬 이거이(李居易)가 영당(瑩堂)에 진배소분(進拜掃墳)할 것을 주청하자, 정종은 제릉에 참배할 것을 생각하고 개성 행행을 준비했던 것이다.

이때 신하들이 제릉의 친제(親祭)가 효성은 지극한 일이지만 임금으로서의 봉선지도(奉先之道)는 아니라며 중지하기를 재차 요청했으나 정종은 들어주지 않고 개성으로 가서 제릉을 참배했다.

왕비릉의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제릉을 확장한 것은 1407년(태종 7)

의 일이다. 태조의 신변을 경호하던 무장 출신으로 선공감사(繕工監事) 등 주로 영선에 관한 일을 맡았던 박자청(朴子靑)이 제릉의 확장 공사를 감독했다. 박자청은 다음해인 1408년 공조판서로서 건원릉 조영 공사를 감독하고 관장했는데, 그는 제릉과 건원릉의 공사를 감독하는 등 토목공사를 관장한 공으로 1418년 참찬(參贊)을 거쳐 판우군총제부사(判右軍總制府事)에 이르렀다.

또한 1408년(태종 8)에는 다섯째 아들 태종이 존호를 승인순성신의왕태후(承仁順聖神懿王太后)라고 높였다. 그런데 1683년(숙종 9)에 여러 왕후의 책봉된 존호 중에 승인순성신의왕태후와 태종의 비인 창덕소열원경왕태후(彰德昭烈元敬王太后)만이 ‘태(太)’자가 있어 미편함이 논의되어 ‘승인순성신의왕후’와 ‘창덕소열원경왕후’로 각각 바꾸었다.

한편 1897년(광무 원년)에 국호를 대한으로 고치고 고종이 황제위에 오름에 따라 종래 조선왕조의 종묘는 대한제국 황실의 선묘(先廟)로 승격되었다. 그 해 10월 12일에는 고종이 천지에 고제(告祭)를 행하고 황제위에 나아가 종묘를 태묘(太廟)로 고쳐 호칭하고, 모든 기용의장(器用儀仗)을 천자의 예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했으며, 황제가 대원군·종친 및 백관을 거느리고 태묘에 전알(展謁)하여 자주독립의 국가로 새롭게 발전해나갈 것을 서고(誓告)했다. 그리고 1899년(광무 3) 12월에는 선세(先世) 추존의 옛 예에 따라서 태조를 태조고황제, 신의왕후를 신의고황후로 추존했다.

1676년(숙종 2) 6월 29일 정자각에 화재가 나고, 1744년(영조 20) 11월에 신의고황후의 신도비를 중건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제릉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 알 수가 없다.

4. 제릉신도비문

權近, 《陽村集》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承仁順聖神懿王后齊陵神道碑銘 并序

自昔帝王受命而興 必賴妣匹之賢 侔德毓慶 以永厥緒 夏有塗山而啓能繼 周有大妣而武丕承 禹文配天之祀 繇是有永 猗歟盛哉 惟我神懿王后天資淑懿 坤德柔貞 早嬪龍淵 弼成王業 篤生聖哲 垂統罔極 神功懿範 比古無愧 獨惜夫大勳垂集 仙遊甚遽 太上開國 而莫崇其壺儀 二聖承緒 而莫致其榮養 山陵掩耀 霜露增悲 嗚呼慟哉 初諡節妃 陵號曰齊 後加諡神懿王后 置仁昭殿以安眞容 追崇之典 已備舉矣 我主上殿下慟念慈儀永闕 孝思莫伸 爰命攸司 勒銘豐碑 令臣近爲文垂示萬世 臣近承命悸恐 不敢以辭 謹按后姓韓氏 安邊世家 皇考諱卿 贈忠誠恭謹積德毓慶輔理功臣 壁上三韓三大匡 領門下府事 安川府院君 皇祖諱珪仁 贈積善毓慶同德贊化翊祚功臣 特進輔國崇祿大夫 門下左政丞 判都評議使司事兼判吏曹事 安川府院君 皇曾祖諱裕 贈純誠積德佐命輔理功臣 崇政大夫 門下侍郎 贊成事 同判都評議使司事兼判戶曹事 安原君 皇妣申氏 封三韓國大夫人 贈秉義毓德輔祚功臣 崇政大夫 門下侍郎 贊成事 同判都評議使司事 判刑曹事元麗之女 后生而淑婉 聰慧異常 及笄擇配 來嬪于我太上王 初爲將相數十年間 出入攻戰 靡有寧歲 后能竭力營家 勉以成功 又性不妬忌 禮遇妾侍 克有多男 教誨以義 今我主上殿下睿哲英武 聖學日進 年未及冠 擢第春官 當僞辛戊辰之歲 侍中崔瑩謀欲猾夏 以我太上王威望素著 授以節鉞 俾往攻遼 太上王仗義還師 執退崔瑩 代以名儒李穡 中外晏然 邦國永賴 穡告太上王曰 當茲構釁中國之後 非執政者親朝帝庭 則公之忠誠 無以白於天下 剋日將行 太上謂穡曰 吾與公一時並使 國事誰任

我擇一子從公而行 猶吾往也 乃遣我殿下充書狀官 特蒙高皇帝優禮而還 己巳秋 帝又降勅 責以異姓爲王氏後 太上王與諸將相議 立王氏之裔定昌君瑤爲王 先是 權姦擅政 攸攘矯虔 太上王時爲左相 罷私田舉墜典 弊去利興 百度俱新 功高不賞 德大難容 讒邪交構 浸潤叵測 定昌柔暗 依違兩端 后乃憂勞成疾 以辛未秋九月十三日薨 享年五十五 以禮葬于城南海豐郡治粟材之原 我殿下廬墳 欲終三年 明年壬申春 太上西行 昇疾而還 殿下來侍湯藥 群邪抵隙 謀傾益急 我殿下應機決策 討除渠魁 兇徒瓦解 定昌益憚 秋七月十六日 與二三大臣倡以大義 臣僚父老不謀而同 合辭推戴 太上王迫於群情 迺卽王位 市肆不易 會朝清明 卽遣使入奏帝庭 聯承勅報 既許王爵 且更國號 以復朝鮮之美稱 越三年甲戌夏 帝乃遣使 令朝親男 太上王以我殿下通經達禮 最賢諸子 命隨來使以行 既至 帝與語嘉之 優賞遣歸 戊寅秋八月 太上王不豫 姦臣鄭道傳等思擅國柄 謀去諸嫡 將立幼孳 朋家聚黨 禍發斯迫 殿下炳幾 先其未發 誅除以燬 申請太上以嫡以長 迎致上王 冊封世子 彝倫既正 宗社載定 九月丁丑 太上以疾未瘳 傳位上王 庚辰正月 逆臣朴苞等謀戕同氣 誘掖懷安父子 稱兵向闕 逆勢甚熾 我殿下率勵將士 旋卽平定 誅止苞身 餘悉不問 安置懷安 不廢懿親 上王以未有繼嗣 且其開國定社咸我殿下之績 冊爲世子 以定國本 秋七月己巳 奉冊寶加上太上王啓運神武之號 冬十有一月癸酉 上王亦以疾遜位于我殿下 遣使請命 明年辛巳 建文帝遣通政寺丞章謹 文淵閣待詔端木禮 奉誥命印章來 封我殿下爲王 冬遣鴻臚寺行人藩文奎來錫冕服 秩比親王 今皇帝卽位 誕告萬邦 殿下卽命左政丞臣河崙入賀登極 帝嘉忠誠事大 賜以誥印 遣都指揮高得 左通政趙居任 以今年夏四月來 仍封爲王 秋九月 又遣翰林待詔王延齡 行人崔榮來 錫袞冕九章錦段紗羅書籍 王妃冠袍金段紗羅 太上王金段紗羅 希世寵典 先後還至 益我殿下功德之盛 實天所

啓 專付大東 以延鴻休 宜受帝眷之隆 以膺天祿之永也 肇基之迹 雖自祖宗 篤生之慶 實繇神懿 噫嘻盛哉 后生六男 上王居二 我主上殿下居五 長曰芳雨 封鎮安君 先卒 次三芳毅 封益安大君 次四芳幹 懷安大君 次六芳衍 登科不祿 二女 長慶慎宮主 適贊成事李佇 次慶善宮主 適清原君沈淙 上王妃金氏 今封王大妃 贈左侍中天瑞之女 我殿下配靜妃 驪興府院君領藝文春秋館事閔霽之女 男長元子禔 次三男皆幼 女長貞順宮主 適清平君李伯剛 次慶貞宮主 適平寧君趙大臨 餘皆幼 鎮安娶贊成事池瀛之女 生男曰福根 奉寧君 女適少尹李叔畝 益安娶贈贊成事崔仁斗之女 生男曰石根 元尹 女適僉摠制金閑 懷安娶贈贊成事閔璿之女 生男曰孟宗 義寧君 女適宗簿令趙慎言 餘皆幼 臣近嘗觀三代聖王 后妃之德莫盛塗妣 載在詩書 千古炳耀 神懿之德 誠可儷美 第以臣近學識膚淺 筆力鄙拙 雖極形容盛德 如繪天地 曷能髣髴其萬一哉 敢稽周雅大明思齊之義 謹述銘詞 拜手稽首以獻 其詞曰

上帝赫赫 啓佑有德 匪伊私之 爲民之極 其啓維何 迺生柔嘉 來配于德 允宜室家 載震載育 厥靈是赫 篤生聖哲 天人攸屬 扶翊聖父 誕作民主 躬朝帝庭 保我邦土 擊莽之萌 炳幾維明 廓爾汎掃 宗社載寧 功成克讓 以尊嫡長 彝倫既正 基勢益壯 迺遭墻闕 不忍致辟 俾獲保全 友愛彌篤 維德之隆 維功之崇 宜紆帝眷 錫命稠重 明明帝誥 煌煌金寶 我龍受之 萬世永保 粵惟王迹 祖宗攸積 誕我聖神 繄由后德 臣拜稽首 獻辭不苟 萬世昭垂 天地永久

5. 제릉표석음기

李宜顯, 《陶谷集》 卷8, 應製錄 神懿王后齊陵碑陰記

神懿王后齊陵碑陰記 甲子

嗚呼 是惟我太祖康獻大王元妃神懿王后韓氏齊陵也 爲甲坐庚向 太宗癸未二月 吉昌君臣權近撰進碑文 甲申二月建中 值壬辰倭難 毀破無存 今上十七年辛酉 道臣有以重豎舊碑爲請者 而時詘未遑 甲子 宗臣申言之 遂命有司具新石刻舊文 宗伯掌其禮 司徒庀其事 仍命臣宜顯附識其下 臣謹拜手稽首而言曰 歷累百載 闕典始修 而聖后夾贊化家之偉烈 因是益彰我聖上追遠之孝 又可以仰窺 一舉而衆美具焉 猗歎盛哉

《列聖誌狀通記》 卷2, 太祖大王

重刻碑附記[英宗二十年甲子十一月]

嗚呼 是惟我太祖康獻大王元妃神懿王后韓氏齊陵也 爲甲坐庚向 太宗癸未二月 吉昌君臣權近撰進碑文 甲申二月建中 值壬辰之後 只有誌狀中所載其文矣 今上十七年辛酉 道臣有以重豎舊碑爲請者 而時詘未遑 甲子 宗臣申永念至恩不勝感愴 追贈徽號 惟極尊崇祇奉舊章用申孝懇恭惟稟姿神懿秉心順承德快乾元若塗山之配禹道全恒吉齊太妣之母周嚴教子之義方篤逮下之仁 惠伏念猥 承厚澤嗣襲丕基今卜良辰式陳縟禮伏惟[伏惟二字疑衍]謹率某官某奉册上尊諡曰神懿[據實錄事實當日承仁順聖神懿王太后此恐缺脫] 仰惟昭鑑俯諒精迓衍萬世之本支綿億年之歷服 修文殿直提學[臣] 卞季良 撰

후릉(厚陵)

1. 연혁

능 주 : 정종(定宗)[1357~1419]

원비 정안왕후(定安王后) 김씨[1355~1412]

위 지 : 경기도 개성시 판문군 영정리

지정번호 :

봉릉연대 : 1419년(태종 19)

전릉연대 :

왕릉형태 : 쌍릉

2. 왕릉 소개

정종(이방과: 1357~1419, 재위 2년, 상왕 20년)과 왕비 정안왕후 김씨(定安王后 金氏: 1355~1412)의 후릉은 조선 최초로 왕과 왕비의 봉분(封墳)을 나란하게 난간석(欄干石)으로 연결한 쌍릉(雙陵)의 형식을 하고 있다. 고려 공민왕릉의 형식을 따라 봉분에는 12면의 병풍석을 두르고 있으며, 석마를

동원한 문석인과 무석인을 각각 2쌍 씩 배치하였다.

1412년(태종 12) 6월 25일 정안왕후가 58세의 나이로 승하하여 후릉에 안장되었다. 그로부터 7년 뒤 정종이 승하하여 난간석으로 두 봉분을 연결하여 쌍릉을 이루었다.

3. 능주 소개

조선 제2대 임금 정종은 1357년(고려 공민왕 6) 7월 1일 함흥에서 태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조선 건국 후 태조 7년[1398년]에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세자 방석(芳碩)이 죽자 대신 세자(世子)로 책봉되고 같은 해 9월에 태조로부터 선양(禪讓)을 받아 즉위하였다. 정안왕후와의 슬하에는 후사가 없으나, 후궁들 사이에 15명의 군(君)과 8명의 옹주(翁主)를 두었다.

그러나 새롭게 건국한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의 골육상쟁, 즉 제1차 왕자의 난을 상기하여 예전의 수도인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동생 정안군을 왕세제로 삼고 왕족, 권신 등이 기르던 사병을 폐지하여 삼군부에 편입시켰다.

또한 2년간의 왕위(王位) 시절 역시 실질적으로는 동생 방원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졌기에, 결국 왕위를 선위(禪位)하고 상왕(上王)으로 머물면서 말년을 지냈다.

관제를 개혁하고, 한양의 5부에 각각 학당을 설립하는 등의 업적을 이뤘다. 태종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개성 인덕궁에 거주하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다가 1419년(세종 1) 왕위에서 물러난 지 19년만에 63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정종(定宗)’이란 묘호(廟號)는 사후(死後)에 바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숙

종 7년[1681년]에 와서야 진상되어 묘호를 정종(定宗)이라 사용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명(明)나라 황제에게서 받은 시호(諡號) 공정(恭靖)을 칭호(稱號)로 삼아 ‘공정왕(恭靖王)’이라 했기에 실록 역시 <공정왕실록(恭靖王實錄)>이라 했다.

한편 정안왕후는 1355년(고려 공민왕 4) 1월 9일 월성부원군 김천서의 딸로 태어났다. 1398년(태조 7) 영안군이 세자가 되면서 세자빈이 된 뒤 덕빈에 책봉되었다가 정종이 즉위하자 덕비로 진봉되었다. 1400년(정종 2) 정종이 세제 방원에게 양위하자 순덕왕태비의 존호를 받았다.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공손하고 겸소한 마음을 지녔다고 한다. 또한 덕행으로서 아랫사람을 다스렸고, 친족들과 친교를 두텁게 했다고 한다. 소생은 없으며, 1412년(태종 12) 6월 25일 인덕궁에서 58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4. 후릉표석음기

朝鮮國

定宗大王厚陵

定安王后附左

定宗恭靖懿文莊武溫仁順孝大王 元至正十七年丁酉七月朔日誕生 初封永安君 皇明洪武三十一年戊寅册封王世子 九月受禪 建文二年庚辰十一月傳位于太宗 永樂十七年己亥九月二十六日昇遐 庚子正月三日葬于豐德東興教洞癸坐之原 在位二年 在上王位二十年 壽六十三 皇朝賜諡恭靖妃順德溫明莊懿定安王后金氏 至正十五年乙未正月九日誕生 洪武三十一年戊寅册封德嬪 尋進封德妃 永樂十年壬辰六月二十五日昇遐 八月八日

葬與大王陵同原 壽五十八

5. 후릉지

卞季良, 《春亭先生文集》 卷12, 碑誌 有明朝鮮國溫仁恭勇順孝大王厚陵誌

永樂十七年歲在己亥秋九月二十六日戊辰 溫仁恭勇順孝大王宮車晏駕我聖德神功上王殿下及我主上殿下哀慕切至 服喪盡禮 上變群臣 奉上尊號 越明年庚子春正月初三日壬寅 以禮合葬于松京海豐郡定安王后之厚陵遺命也 大王 我太祖康獻大王之第二子 天資溫仁恭謹 勇略過人 仕高麗累官至將相 常從太祖 出征立功 歲庚午 將兵捕倭于禮山獻捷 歲壬申秋七月 太祖即位 封永安君 歲戊寅秋八月太祖不豫 權臣有欲挾幼搆亂者我上王炳幾殲除 請于太祖 冊封大王爲世子 九月丁丑 受太祖內禪 歲庚辰春二月 以無繼嗣 封我上王爲世子 其年冬 不豫 禪位于我上王 上王進大王尊號 曰仁文恭睿 上王愛敬盡孝 久而益篤 大王春秋六十三歲 在王位三年 居閒養病十有九年 此終始哀榮之大槩也 妃金氏 贈門下左侍中諱天瑞之女 性不妬忌 禮遇妾侍 我上王進尊號爲順德王大妃 追諡定安王后 無子 宮妾子男十五人女十人 曰元生 封義平君 次茂生 次幼 池氏出也 曰群生 封順平君 次義生 次三 皆幼 女適全州府尹金諱謙之子 封淑慎宅主 次二皆幼 奇氏出也 其餘男女皆幼 義平娶衿川監務崔致崇之女 生一男一女 幼 順平娶判司宰監事薛存之女 永樂十八年庚子正月日 謹誌